

a디자인뮤지엄 김명한 대표의 추천

##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디자이너 정재범

“정재범은 브랜드 ‘퍼시스’의 가구 디자이너이자, 개인적인 작품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는 젊은이입니다. 즉, 대량생산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중인 데다, 현재 자신의 디자인 캐릭터도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트에 가깝지만, 곧 대중성에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색을 갖춘 대중적 디자인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요. 제가 컬렉션한 그리드 체어(Grid Chair)도 1950년대 토넷 의자를 재해석한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지는 의자죠. 이것을 파이프나 스틸이 아닌 아주 가는 와이어로 작업해낸 것입니다. 가장 흔한 디자인을 독특하게 해석한 셈이죠.”



**1** 오리지널 그리드 체어는 a디자인뮤지엄 김명한 대표가 소장 중. 사진의 작품은 오리지널보다 의자 다리가 높아진 하이 그리드 체어다. 의자 다리는 사용될 금속 조각을 규격에 맞춰 재단한 후 용접으로 이어 만든다.  
**2** 의자 6개를 정육각형으로 연결해 작품 이름도 'Relle×60'이다. 6개 의자 중 블랙 스테인으로 마감한 하나의 의자만 나무 소재이고 나머지는 스틸과 아크릴을 이용했다. 사이즈는 1,760×1,760×900mm. 문의 [www.stonewater.kr](http://www.stonewater.kr)

정재범은 금속공예를 전공하다 작품을 위한 작품보다 여러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목가구 디자인을 복수 전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금속공예의 기법적인 면과 가구의 기능성이 믹스된 장점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그의 디자인 철학이 되어버렸다. 흑 컴퓨터 3D 모델링 작업을 본 적이 있는가. 그의 대표작인 그리드 체어만 봐도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정교함에 놀랄 정도! 유럽의 어느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를, 금속이 가지는 아트적인 속성을 이용해 새롭게 표현해낸 것이다. 그런데 얼핏 복잡해 보이는 그의 작업은 의외로 단순, 정직하다. 밴딩 기계조차 사용하지 않고 스틸을 일일이 손으로 구부리고 재단하고 용접하여 완성하는 것. 게다가 모든 재료를 미리 재단해두기 때문에 컴퓨터처럼 1mm의 오차 없이 딱 들어맞아야 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하나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기계가 하지 못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하나의 재료와 하나의 기법을 사용하는 그의 고집스러움이 더해진다. “저의 작업은 ‘미니멀리즘’의 정신과 닮아있어요. 가구 디자인에서도 소재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쓰기보다, 최소한의 재료와 기법으로 어떻게 하면 가구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까지 그의 작업은 분명 작품과 가구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중. 이러한 그의 경험이 축적되는 날, 작품성을 갖춘 대중적 가구 가우리 앞에 짠~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